



세계 일등 기업 면모에 알맞은 안전한 환경 조성

취재 · 사진 | 최중덕 기자(safeeng@safe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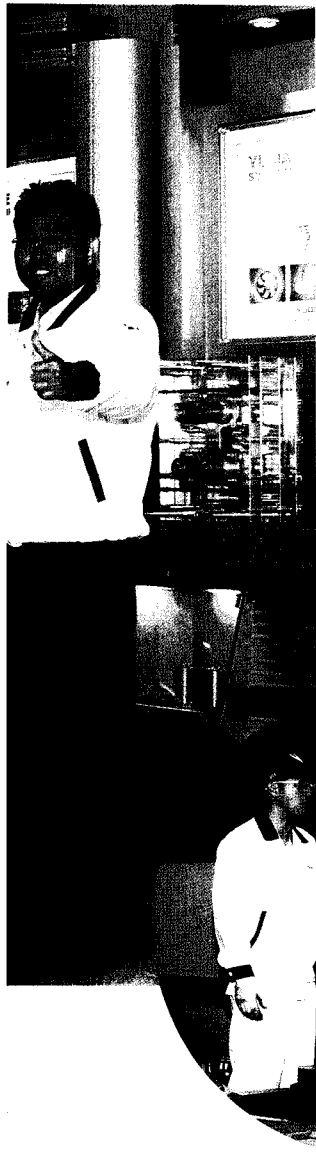
공무팀 김기영 대리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금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자주 접합니다. 안전 업무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소식은 달갑지 않을 뿐더러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휴먼에러에 의한 재해가 80%를 넘는 수준입니다. 안전시설, 안전기준이 있어도 이를 생략하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재해들이지요. 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사후 지원을 잘해 준다고 해도 결국 사고로 후유장애를 감수해야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는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 심각성이 더 합니다. 산업재해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란 먹구름을 드리웁니다.

사실 산업재해는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기준 준수 등 아주 사소한 부분만 지켜준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 만으로도 현 재해수준의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은 지키는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 또 안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핫 러너라는 인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1980년, 국내에 첫발을 내딛으며 오로지 핫 러너 시스템 개발에만 전념한 끝에 아시아는 물론 세계 시장을 점유하며 1위 기업으로 당당히 올라선 기업이 있다. 바로 유도실업.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이나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그 어떤 글로벌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다. 철저히 고객 주문 생산을 추구하면서 고객 만족을 높인 유도실업은 이 모든 것이 내부 고객인 근로자를 만족시킨 결과다.

외부는 작은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시키고 내부는 유명 작가의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아에 온듯한 기분. 무엇보다 이러한 기분을 현장 곳곳을 다니는 동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유도실업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사람의 나이로는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보다 성숙한 기업경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바로 근로자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기업경영, 유도실업이 앞으로 추구하는 경영이다. 오늘도 무재해를 꿈꾸며 직원 안전에 여념이 없는 현장을 찾아 이들의 안전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전한 유도실업을 이어가는 안전관리시스템

“핫 러너”는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생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금형 내에서 원료가 굳지 않고 골고루 퍼지도록 열선이 내장된 장치다. 소재입고부터 매니폴더, 건드릴 공정 등 총 10개 작업공정으로 이뤄지는 핫 러너 시스템 공정은 전량 주문생산에 의해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표준공정이 없고 작업 공정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주문생산으로 잠재된 위험요소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년들어 단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을 만큼 유도실업에서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부 안전관리 전문가와 연계한 시스템이 돋보인다. 3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 전담안전 관리자가 있음에도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와 연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유도 실업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노사가 함께하는 협의회, 현장 팀장 중심의 안전관리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환경이 안전을 부른다

안전의 명제에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안전제일”, “내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해야하는 안전의 필연성”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산업안전 활동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안전의 기본은 정리와 정돈”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유도실업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기법인 5C 운동과는 달리 유도실업 최고경영자의 마인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다르다.

5C 운동이 품질개선을 위해 안전이 수반되었다면 유도실업의 깨끗한 환경은 오로지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일과시간 내내 잔잔히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로비나 복도 그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림들,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중량물을 취급하고 금속을 취급하는 기업 같지 않은 쾌적함 그리고 안정감…」 이것이 유도실업이 추구하는 안전이다. 정리정돈이라는 기본적인 안전이 무재해 유도실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변해가는 안전의식, 자리 잡는 안전문화

유도실업 현장 입구 게시판에는 매월 개선된 사항이 누적되어 게시되어 있다. 벌써 여러 장이 쌓일 정도로 개선활동이 활성화됨을 짐작하게 한다. 안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직원 또는 외부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도실업의 특징. 이곳에 게시된 내용도 직원과 외부기관이 참여하여 개선된 사항들이다.

안전은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전문화로 자리 잡을 수 없다. 이들의 정착된 개선활동도 그동안 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 법적 안전교육 외에도 사소한 야차사고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과 면담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야차사고에 대한 DB화를 통해 발생 특성 분석 등 예방활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도실업의 꾸준한 노력으로 금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며 글로벌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